

# “절에서 꽃피는 효심”

## 가족 인연맺기· 무료급식· 경로잔치 등 ‘풍성’

‘맑고 향기롭게 모임’(회주 법정)에서는 21일 10시부터 3시까지 전국 각지에서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를 주제로 가두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상징하는 연꽃스티커와 자연을 사랑 자생꽃씨 무료배포

‘맑고 향기롭게’ 모임

하지는 내용의 전단, 우리 땅에서 자라는 작물을 꽃씨를 무료로 배포한다. 또 등산로 주변의 쓰레기 수거작업도 벌인다. 캠페인 장소는 서울 관악산, 부산 금정산, 대전 엑스포공원, 춘천 삼악산, 전주 모악산, 제주 공항터미널 등이다.

“나도 한때 쌀 한가마니 거뼉히 짊어지고 10여리를 쉬지 않고 단숨에 달리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나처럼 주름투성이 늙은이가 돼요.”

애써 눈물을 감추며 하루가 모르게 무거워지는 몸을 가누며 불교자원봉사연합회가 서울 길동에 마련한 무료급식소 ‘관음의 집’(회장 안정수)을 찾는 정봉수 할아버지(91).

이처럼 최근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돼 공원을 배회하고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교계에서는 이들을 위한 무료급식과 경로잔치, 자원봉사활동 등 노인들을 봉양하는 효행이 일년 내내 잇따르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강원 속초종합복지관(관장 지홍)내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지난달 29일 관내 무의탁독거 노인 가운데 3월 생신을 맞은 황봉이할머니(72) 등 8명을 초청, 주접한 생신상을 마련했다. 독거노인들의 쓸쓸한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주고자 마련된 이날 생신잔치에서는 신촌사 거사립회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축하드립니다’라고 큰절을 올리고 이들의 인연을 맺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또 노인들은 복지관내 주부노래교실회원들의 축하공연으로 오랫동안 흥겨운 가락에 맞춰 어깨춤을 추며 한평생의 시름마저 날려보내는 듯 얼굴 깊게 미소 짓는 주름살을 펴며 환한 웃음을 잃지 않았다.

청주 원리사(주지 원명)도 지난달 24일 청주예술문화회관에서 지역내 노인 1천5백여명을 초청, 경로잔치를 마련했다. 이날 사물놀이패의 자진가락의 멋드러진 풍악이 펼쳐지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흥에 이기지 못해 어깨를 들썩이면서 “모처럼 귀에 익은 풍물가락을 들으니 절로 흥이 난다”며 어린아이처럼 밝은 미소를 지었

다. 금년으로 네번째 경로잔치 한마당을 개최한 원리사는 이제는 효행실현의 도량으로 주위의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밖에도 부산 대각사, 불교 자원봉사연합회, 경복련 자비의 집, 불교복지관 등 사찰과 신행단체에서는 무의탁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과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특히 전국의 각 사찰에서는 가정의 달 5월과 백중(음 7월15일)에 다양한 경로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교계는 노인들을 봉양하는 효행활동이 일년내내 계속되고 있으며 사찰은 효의 근본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종근 기자)



청주 용화사 용화보전 중창

청주 용화사(주지 월탄)가 3년봉사를 마치고 지난 8일 용화보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지난 1일부터 진행된 낙성식은 월산(불국사 조실), 설정(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2천여명이 동참했다. 용화보전은 무심천에서 발굴된 보물 제965호 7존 미륵석불을 모신 법당으로 심천불을 함께 봉안했다.



관음의 집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의탁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 자신정화 “개혁정신 되살리자”

계을업수 4·10 전국승가대회 2주년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은 94년 종단개혁의 정신과 뜻을 되새기는 4·10 전국 승가대회 2주년 기념식을 지난 10일 불교회관에서 봉행했다.

당시 승려대회를 이끌었던 개혁회의 원로스님들을 비롯 소임을 맡았던 스님 등 70여명이 참

또 월주스님은 “종단개혁 멈출 수는 없습니다”라는 담화문을 발표, 종단내적으로 근대적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승중진작을 통해 청정한 승가상을 구현함은 물론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 나누는 연등, 나누는 마음

불국위 연등선물하기 캠페인

승가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김경호실장(불교정보전략연구소)은 사회, 불교계 정세분석에서 “인구증가의 1%, 1만불소득시대, 산업의 고도화, 여성의 역할중대 등 사회변화에 따른 불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새불교승가회는 수행자가 종단내부에서 인정받고 포교, 수행에 전념하기위해 지난해 12월 창립, 1백2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법주사=이준엽 기자

### 바른 승가상 위해 지계 ‘절실’

새불교전국승가회 춘계 수련·세미나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삼인외장 진관)가 개혁작업을 평가하고 향후 승가운동을 전망하기위한 춘계수련 및 세미나를 지난 8~9일 양일간 속리산 법주사에서 개최했다.

“21세기 승가가 나아갈 방향과 모색”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 해정스님(전법주사주지)은 “한국불교중흥을 위해서는 교육제도 수도체

제를 확고하게 정립해 인재양성에 앞장서야한다”며 “바른 승가상을 세우기위해 계을은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관스님(새불교승가회 대변인)은 “정보화사회에서의 승가상”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역사속에서 모든 스님들의 모습이 다양했고 새로운 승가상을 보여주었다”며 “현실에 충실하는 승가의 모습이 새로운

### ASEM 경주유치 ‘움직임’

경북도 신청서 제출...5월초 결정 예정

석굴암·불국사 등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경주에서 2천년 제3차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을 개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8일 ASEM 준비위원회와 정부측에 ASEM 경주개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북도는 유치신청서에서 경주는 세계문화유산 등 찬란

한 우리문화를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또한 풍부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도시라며 경주개회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불국사를 비롯한 지역 불교계도 ASEM 경주개회는 우리나라의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우리문화를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또한 풍부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도시라며 경주개회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불국사를 비롯한 지역 불교계도 ASEM 경주개회는 우리나라의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불국등 선물하기 전국 전개

부처님 오신날 불국위 연등축제·점등식등 행사일정 확정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이웃에게 불국등 선물하기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부처님 오신날 불국위원회는 지난 9일 전국불국위 회의를 갖고 불국분위기 확산과 포교를 위해 불국등 선물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고 불국행 사일정을 확정했다.

전국 14개 불국위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불국위는 소의된 이웃, 친지와 친구, 연인, 고마운분들에게 등을 선물하는 문화를 전 국민적 풍습으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불국위는 또한 ‘나누는 연등, 나누는 마음’이란 슬로건을 정하고 △캠페인 등을 만들어 선물하기 △자동차용 꼬마등 선물하기 △사찰 및 단체별로 병영이나 복지시설 방문 연등공제작 및 선물하기 등의 행사 지침을 마련했다.

한편 불국위는 5월 한달을 불

국등 달로 정하고 불국행사 이 미지 통일을 위해 불국위가 개발한 휘장, 캐릭터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불국행사는 다음과 같다. <문화행사 인내 13면>

△연등축제(5.19일)동대문-조계사) △시청앞 점등식(5.14시청앞) △원각사지 탐방(5.22 탐골공원) △불교용변대회(5.12 조계사) △불국심포지

음(5.16 조계사) △학술세미나(5.17 동국대) △청정국토 한마당(6.1~2 조계사) △전방 OP 점등식(5.2 애기봉) △현형캠페인(5.19, 5.24 동대문운동장 조계사) △탐골공양(5.14 탐골공원) △열주달아주기(5.20~22 봉은사앞 사거리) △노인 재소자위문(5.7~8 청송감호소) △외국인잔치(5.12 조계사)

### 정암사 만항지구개발 ‘어불성설’

월정사 “적멸보궁 존립 위태롭다”

월정사(주지 현해)는 지난 10일 산중다원에서 ‘합백산 정암사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정암사소유지 만항지구 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월정사 총무 원행스님은 “만항지구는 정암사가 위치한 합백산 정암사를 포함하고 있어 대규모 산림파괴는 물론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된 10대성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만항지구와 함께 검토되고있는 고토일지구또는 지장산지구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또 “만항지구로 개발이 확정된다면 2천만불짜리 반대서명을 전개하겠다”며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지장보살전 점안

대한불교 조계종 영천 총회사(주지 석해공)는 지난 10일 대구·부산·포항 등지에서 온 4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지장보살전 점안식을 봉행했다.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또 “만항지구로 개발이 확정된다면 2천만불짜리 반대서명을 전개하겠다”며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지장보살전 점안

대한불교 조계종 영천 총회사(주지 석해공)는 지난 10일 대구·부산·포항 등지에서 온 4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지장보살전 점안식을 봉행했다.

### 마음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거기에 아무런 장벽이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자기 스스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녀는 부자상봉이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한 자는 본래 등이 아니지만 현세의 자 땅을 나로 앓고 있으니 등이 되는 것입니다.

합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 불교성지순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특별 기획상품을 마련하였사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원합니다.

-해초여행사 임직원 일동 송함-

대만 성지순례 3박4일  
4월 25일출발 모집중(확정)

인도 성지순례 9일

- 일 정 : 서울-델리-아그라-바라나시-부다가야-라지그르-나란다-파트나-쿠시나गर-룸비니-발람푸르-기원 정사-델리-서울
- 동참금 : 150만원

특별기획 1 중국 티벳 네팔 9일

- 일 정 : 서울-상해(1)-성도(1)-라사(1)-장제-시가체(1)-라사(2)-카르만두(1)-기내(1)-서울
- 동참금 : 230만원
- 기 간 : (1차) 3월 17일-3월 25일 (2차) 5월 12일-5월 20일 (3차) 6월 23일-7월 1일

특별기획 3 중국 불교 성지순례 9일

- 일 정 : 서울-상해-보타산(2)-낙가산-영파(1)-천태산-향주(1)-구화산(2)-소주(1)-상해(1)-서울
- 동참금 : 135만원
- 기 간 : (1차) 4월 8일-4월 16일 (2차) 5월 25일-6월 2일 (3차) 6월 20일-6월 28일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 일 정 :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플른나투아-시기리아-덤볼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
- 동참금 : 118만원

대만 성지순례 5일

- 일 정 : 서울-타이페이-고웅-불광사-화련-타이페이-서울
- 동참금 : 65만원

특별기획 2 중국 불교유적지 13일

- 일 정 : 서울-상해(1)-계림(2)-서안(1)-낙양(2)-용문석굴-소림사-정주(1)-대원-오대산(1)-대동(1)-운강석굴-북경(2)-서울
- 동참금 : 180만원
- 기 간 : (1차) 3월 23일-4월 4일 (2차) 4월 22일-5월 4일 (3차) 5월 27일-6월 8일

HVECHO ADVENTURE TOURS, LTD. 국외여행업 제604호

이초여행사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각 사찰, 신도회 단체 성지순례, 수시 출발·상당환영 (일정조정 가능)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 5일

- 일 정 : 서울-덴파사-족자카르타-보로부두르-자카르타-서울
- 동참금 : 95만원

미얀마 태국 성지순례 8일

- 일 정 : 서울-양곤-파간-만달레이-양곤-페구-양곤-방콕-서울
- 동참금 : 145만원